

작가약력 및 작품해제 Catalogue Entries

1970s

4 권영우
5 김영주
6 김종하
7 민복진
8 성능경
9 이정자
10 최영림
11 한봉덕
12 홍종명
13 황용엽

14 Kwon Youngwoo
15 Kim Youngjoo
16 Kim Chongha
17 Min Bokjin
18 Sung Neungkyung
19 Lee Jungja
20 Choi Youngrim
21 Han Bongduk
22 Hong Jongmyoung
23 Hwang Yongyop

권영우(1926-2013)는 함경남도 이원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중앙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후학을 양성했으며 1978년 교직을 사임하고 도불(渡佛)하여, 11년간 파리 화단에서 활동했다. 《한국현대미술 1957-1972: 조형과 반조형》(명동화랑, 서울, 1973)을 비롯하여, 국내 화단에 모노크롬을 본격적으로 알린 전시 《한국 5인의 작가, 다섯 가지 흰색전》(동경화랑, 도쿄, 1975)에 참여하였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한국미술—오늘의 방법전》(1979), 서울방법작가회 정기전 《방법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작가는 국내 대표적인 단색화 화가 중 한 명으로, 1960년대부터 종이의 질감 자체와 물성을 조형언어로 삼는 〈무제〉 연작을 시작했다. 붓과 먹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동양화의 방식에서 벗어나, 색채 너머 회화 공간 자체 및 재료에 대한 관심으로 백색 한지를 겹쳐 바른 패널을 손톱, 칼, 송곳 등의 도구로 찢고, 뚫고, 오리거나 붙이는 기법을 사용했다. 《한국미술—오늘의 방법전》 출품작인 〈작품 78-76〉(1978)은 한지를 찢고 구멍을 내는 대표적 표현기법이 집약된 작품으로, ‘재료의 물성’에 대한 탐구를 전통 재료인 한지에 확장한 전위적인 시도로 평가받는다.

김영주(1920-1995)는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나 일본 도쿄의 다이헤이요 미술학교를 졸업했다. 1953년 첫 개인전 이후 《한국현대회화전》(월드하우스 화랑, 뉴욕, 1958), 《제7회 상파울루 비엔날레》(1963), 《제1회 카누 국제회화제》(1969) 등에 참여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김영주 전》(1975), 《제7회 서울현대미술제》(1981)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회화와 미술비평을 병행한 작가는 1956년 ‘한국미술평론가 협회’를 창립하고 한국 미술평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미술잡지 『신미술』 창간호의 필진으로 참여해 현대미술 담론 형성에 기여했다. 또한 1950년대 추상 운동에 앞장섰고, 1960년 ‘현대미술가연합’을 결성하여 국전 개혁을 주도하는 등 한국현대미술운동의 주역이자 전위적 미술평론가로 평가받는다.

작가는 구상과 추상이 공존하는 화풍을 전개했다. 1950년대 초기에는 앙포르멜의 영향을 반영한 비정형적 화면을 선보였으며, 후반부터 얼굴과 문자 등 구상적 요소를 화면에 도입했다. 1970년대 전후로 현대미술 운동과 집단적 의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내면과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로 관심을 확장했다. 이 시기에는 원시적 공간과 조형, 동양적 황금분할의 구성요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기호·문자·도형 등을 활용한 화면 구성을 전개했으며, 인간과 인간의 상황을 일관된 주제로 다루었다. 〈인간들의 이야기〉(1971-1973)는 40여 년간 지속해 온 ‘인간’을 주제로 구상과 추상이 공존하는 그의 화풍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화면 상단에는 얼굴 형상과 함께 낙서 형태의 기호와 자유로운 필선이 겹쳐 있다. 하단에는 서로 다른 색면의 사선 형태가 배치되어 있으며, 문자와 기호, 구체적인 형상과 색면을 함께 구성한 화면에서 1970년대 이후 작가의 대표적인 조형적 특징이 엿보인다.

김종하(1918-2011)는 서울에서 태어나 일본 도쿄의 가와바타미술학교와 제국 미술학교에서 수학했다. 1932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한 후 일본에서 유학하며 본격적으로 미술을 공부했고, 1956년 프랑스로 건너가 그랑드 쇼미에르 아카데미에서 3년간 수학하며 초현실주의 회화를 연구했다. 귀국 후 1950년대 말에는 구상미술 단체인 ‘목우회’의 창립에 참여했으며, 《한국미술—오늘의 방법전》(아르코미술관, 서울, 1979), 《한국 현대미술 어제와 오늘전》(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86), 《대한민국 원로작가 초대전》(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98-1999) 등 주요 단체전에 참여했다. 1932년 15세의 나이로 조선미술전람회 최연소 입선 기록을 세웠으며, 1982년 프랑스 루벤스 명예상, 2002년에는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작가는 풍경과 인물, 일상의 사물을 화면에 재배치하여 초현실적인 풍경을 연출해왔다. 특히 프랑스 체류 이후에는 여성의 신체와 자연 풍경을 함께 다루며 신체의 곡선과 풍경의 형태를 연결하거나, 일상적 사물을 현실과 다른 방식으로 배치했다. 제1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초대작가로 출품한 〈어떤 순간의 영상〉(1969)은 창과 바다의 구도가 주는 신비한 거리감과 새의 움직임이 낯선 심상을 일으키며, 당시 국전이 거둔 주요 성과로 언급된 바 있다. 한편 〈철새들의 휴식〉(1974)에서는 여성의 몸에 새의 머리를 결합한 형상들이 무리를 이루어 등장한다. 두 작품 모두 자연과 일상의 대상과 사물이 한 화면을 이루며, 이질적인 대상 간의 결합을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의 대표적인 초현실 화풍의 특징을 드러낸다.

민복진(1927-2016)은 경기도 양주에서 출생해 홍익대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했다.

1996년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했으며, 2009년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명예공로상을 수상했다. 한국에서 근대적 조각 교육을 받고 한국 현대 구상 조각의 발전을 이끈 조각가로, 1970년대 추상 조각에 대응하여 구상 조각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했던 ‘한국구상조각회’를 비롯해 ‘홍익조각회’, ‘목우회’, ‘신상회’ 등 주요 조각 단체에서 활동하며 한국 현대 구상 조각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이들 동인의 정기전을 비롯해 《한국미술—오늘의 방법전》(1979) 등 주요 전시에 참여했다.

민복진은 모자(母子)와 가족을 중심 주제로 인간과 가족의 관계를 탐구한 구상 조각을 전개했다. 인체를 단순화하고 양식화한 형태, 부드러운 곡선과 풍부한 양감을 바탕으로 인간애와 생명력을 조형적으로 표현했으며, 대리석과 화강석, 브론즈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절제된 형태와 균형감 있는 조형미를 구축했다. 기념 동상과 공공 조형물 제작에도 활발히 참여하며 한국 현대 구상조각의 영역을 확장했다.

〈모자(母子)〉(1975)는 작가가 오랫동안 제작한 〈모자(母子)〉 연작에 속하는 작품이다. 둥근 타원형으로 단순화한 어머니와 아이의 형상을 통해 그가 한결같이 추구했던 인간에 대한 포용력과 사랑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으며, 곡선 중심의 형태와 안정적인 양감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성능경(1944-)은 충남 예산에서 출생하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했다.

1970년대 초 실험미술 그룹 ‘ST(Space & Time 조형미술학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했고, 한국 실험미술의 대표 작가 중 한 명이다.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1977년 서울 11인의 방법전》을 비롯한 ‘서울방법 작가회’의 정기전 등에 참여했으며, 2001년 아르코미술관에서 개인전 《성능경: 예술은 착란의 그림자》를 개최했고, 《한국 실험미술 1960-70년대》(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23) 등 국내외 주요 기획전에 초대되었다.

작가는 신문, 사진, 설치, 이벤트(event) 등 다양한 형식으로 언론과 제도, 예술의 관습을 비판적으로 탐구해왔다. 특히 신문과 잡지, 지도 등 공적 인쇄 매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이후 <망친 예술> 연작을 통해 예술과 삶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2008년 아르코미술관에 소장된 <신문: 1974년 6월 1일 이후> (1974)는 1974년 국립현대미술관 《제3회 S-T전》에서 설치 및 퍼포먼스로 첫선을 보인 후, 아르코미술관 개인전을 비롯한 여러 전시에서 소개된 바 있다. 이 작품은 신문을 오리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함께 제시하여, 사건과 편집된 정보 사이에서 형성되는 신문의 허구성과 당시 신문 기사에 대한 사전 검열을 비판적으로 드러냈다. 작가는 전시에 앞서 두 달 전부터 매일 신문 기사를 면도날로 오려내는 행위를 시작했으며, 전시 기간에도 이를 지속했다. 기사 부분이 제거된 신문은 사진, 광고, 행간만 남은 상태로 전시장 벽면의 패널에 게시되었고, 다음 날에는 같은 과정을 거친 새로운 신문으로 교체되었다. 전날 게시했던 신문은 투명 아크릴 상자에 차례로 쌓아 보관하고, 오려낸 기사 조각은 청색 아크릴 상자에 담았다.

이정자(1940-)는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63년 신인예술상전 차석상을 수상하며 주목받기 시작했고, 1966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특선을 수상했다. 1977년 선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했고, 한국여류조각가회 동인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동인전과 정례전에 참여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한국미술—오늘의 방법전》(1979), 《제6회 서울현대미술제》(1980) 등에 초대되었으며, 1980-90년대 《이상전》과 《이화조각전》 등에 참여하며 ‘이상회’(후일 ‘이화조각회’) 활동을 이어갔다.

작업 초기에는 부드러운 선의 미학이 돋보이는 여인상을 탐구하였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테라코타와 세라믹 등을 활용하여 옷을 입은 모습을 담아낸 절제된 조각을 제작했다. 이후 대리석과 브론즈를 중심으로 모성과 생명의 의미를 담은 〈모정〉, 〈모자상〉 연작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희망과 사랑의 가치를 조각으로 표현해 왔다.

〈귀부인〉(1977)은 작가가 테라코타를 중심으로 작가 고유의 조형언어를 확립하던 시기의 작품이다. 1975년 전후부터 전개한 부드러운 질감과 붉은 색조의 테라코타 인물상 작업의 주요 특징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소장 이후 처음 공개되는 작품으로, 작가가 추구한 절제된 조형미와 테라코타의 물성을 특징적으로 담아낸다.

최영림(1916-1985)은 평양에서 태어나 일본 다이헤이요미술학교에서 수학했으며 판화가 무나카타 시코에게 목판화 기법을 배웠다. 한국전쟁 중 월남한 뒤 1955년부터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 참가하여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을 지냈으며 1957년 ‘창작미술협회’, 1958년 ‘한국판화협회’, 1967년 ‘구상전’ 창립에 참여했다. 특히 ‘구상전’은 새로운 구상을 표방하며 1960년대 대표적 단체로 자리매김했고, 추상과 아카데미즘 회화의 양분화된 경향을 벗어나 한국적 정서를 담은 반추상 화풍을 이끌며 구상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단체였다. 홍종명, 한봉덕과 함께 ‘구상전’의 일원으로 활동한 작가는 회화와 판화를 병행하며 한국의 민담과 불교 설화, 무속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국적 구상회화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했고, 1950년대 후반에는 강렬한 흑색의 추상, 반추상 작품을 그렸다. 이후 1960년대 후반부터 황토와 흙모래를 활용한 독특한 마티에르와 토속적 색채를 바탕으로 <심청전>, <장화홍련전> 등과 같은 민담, 여인, 아이, 불상, 황소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을 제작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여러 차례의 《구상전》에 참여하는 한편, 《미술회관 개관기념 판화초대전》(1974), 《한국미술—오늘의 방법전》(1979), 《한국미술: 판화대전》(1981), 《국전출신작가전》(1983) 등 주요 전시에 참여했다. <하일(夏日)의 모자(母子)>(1974)는 여인과 아이를 단순화된 형태와 색채로 표현한 작품이다. 거친 질감과 간결하게 표현된 인물, 안정된 화면 구성을 통해 작가가 추구한 한국적 정서와 인간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애정을 담아내며 1970년대 최영림 회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한봉덕(1924-1997)은 평안북도 영변에서 태어나 만주 신징미술학교에서

수학했다. 광복 후 미술 교사와 조선일보사 삽화가로 활동했으며, 1957년 조선일보 주최의 《현대작가초대미술전》에 참여해 국전의 보수성에 반발하며 화단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했다. 또한 ‘현대미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신상회’ 창립에 참여하는 등 한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경향을 이끌었으며, ‘창작미술 협회’와 ‘구상전’을 중심으로 최영림, 홍종명 등과 함께 반추상의 새로운 구상회화를 전개했다. 1954년 개인전을 시작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일본, 미국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1980년대 스웨덴국립미술관 초대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국내외 단체전에 초청됐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1980-90년대 초까지 다수의 ‘구상전’ 동인 전시에 참여했다.

1970년대 초 스웨덴으로 떠나기 전까지 비정형적 추상화를 통해 탈전통의 움직임이 보이며 반추상과 초현실적인 화풍을 전개했다. 이 시기 조각가로도 활동하며 서울 보문사의 석굴암 조성에 참여한 바가 있다. 1973년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이주한 뒤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작가는 서구회화와 추상적 조형 언어를 바탕으로 서예적 운필, 한자, 불교, 고구려 벽화, 십장생 등 동양적 정신과 상징을 화면에 담아냈고 유럽 화단, 특히 스웨덴에서 높은 명성을 얻었다.

〈숲〉(1972)은 스웨덴 이주 전의 작업으로, 청록과 청색을 중심으로 한 색면 위에 붉은색과 황색의 색채가 중첩되며 자유로운 필선이 돋보인다. 자연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기보다 자연을 소재로 하면서도 형태를 단순화하고 색채와 필선의 조형성을 강조함으로써 반추상적이고 초현실적인 화풍을 드러낸다.

홍종명(1922-2004)은 평양에서 태어나 일본 동경제국미술학교를 졸업했고 한국전쟁으로 제주도로 남하한 후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1953년과 1957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고, 1987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서울로 상경한 후 1957년 ‘창작미술협회’ 창립에 참여했으며, 이후 ‘신상회’를 비롯하여 사실과 추상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구상과 추상을 자유롭게 오가며 반추상의 화풍을 전개했던 ‘구상전’ 창립회원으로 활동하며, 1960-70년대 한국 구상회화의 새로운 흐름에 일조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홍종명 도불전》(1975)을 비롯해 《한국미술—오늘의 방법전》(1979), 다수의 ‘구상전’ 동인 전시에 참여했다.

한국전쟁과 분단으로 이산과 실향의 아픔을 지녔던 작가는 평생 딸을 잊지 못하는 마음으로 새와 소녀, 아기를 담아냈던 <과수원집 딸> 연작을 그렸다. 또한 새와 물고기, 꽃, 인물 등 고향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자연의 소재에 향토적 정서와 고구려 고분벽화를 연상시키는 갈색 계열의 색조가 두드러지는 독자적인 화풍으로 잘 알려져 있다. <새와 같이>(1975)와 <새야새야>(1979)는 이러한 작가의 주요 화풍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새야새야>는 《한국미술—오늘의 방법전》에 출품된 작품으로, 두 작품 모두 새를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의 요소를 결합하여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와해하는 자유로운 회화 양식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한국적 정서를 담아냈다.

황용업(1931-)은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미술대학을 거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1965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제1회 이중섭미술상(1989)과 보관문화훈장(2005)을 수상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1970년대 중반 여러 차례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한국미술—오늘의 방법전》(1979), 《제3회 인간전》(1984) 등에 참여했다.

1961년부터 1969년까지 구상, 비구상 등 다양한 경향의 젊은 작가로 구성된 ‘앙가주망’ 동인으로 활동하였으며, 1980년대 아카데미즘 구상 형식을 벗어나 인간 존재의 예술적 표현에 주목하는 ‘인간전’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1970년대 인간을 주제로 한 연작을 전개했던 작가는 1980년대 후반부터 민족적 정서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해나간다. 〈인간〉 연작은 1970년대 추상과 구상을 넘나드는 조형 실험을 거쳐 간결한 선을 통한 상징적이고 비정형적인 인간상을 그리며 회갈색조 화면과 선묘를 활용해 인간 실존을 구조적으로 파악한 그의 대표적 시리즈 작업이다. 〈인간(II)〉(1978)은 화면을 가로지르는 선과 인물의 상하 배치, 직선과 곡선으로 축약된 인간의 모습과 회색조의 배경을 통해 역사의 비극적 상황들을 마주했던 작가의 인간적 삶과 실존에 대한 고민을 투영하고 반복적인 시리즈 작업으로 전개된 그의 대표적 회화 양식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Kwon Youngwoo (1926–2013) was born in Iwon, Hamgyeongnam-do, and studied East Asian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He taught at the College of Fine Arts, Chung-Ang University, until 1978, when he resigned and left for France, working in the Paris art world for eleven years. He participated in *Korean Contemporary Art 1957–1972: Plastique & Anti-Plastique* (Myeong-dong Gallery, Seoul, 1973) and in *Korea: Five Artists, Five Hinsek—White* (Tokyo Gallery, Tokyo, 1975), the exhibition that brought monochrome painting to the full attention of the Korean art world. At ARKO Art Center he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including *Korean Art—Today’s Method* (1979) and the regular *Way* exhibitions of Seoul Artists’ Methods.

One of Korea’s foremost Dansaekhwa (monochrome) painters, Kwon began his *Untitled* series in the 1960s, taking the texture and materiality of paper itself as his formal language. Moving beyond the brush and ink of traditional East Asian painting, he turned away from color to focus on pictorial space and the material itself, layering white hanji, or Korean paper, over panels, which he then tore, punctured, cut, and pasted, using his fingernails, knives, and awls. *78-76* (1978), shown in *Korean Art—Today’s Method*, condenses his signature techniques of tearing and piercing the hanji. This piece is regarded as an avant-garde work that extends the exploration of materiality to the traditional Korean material of hanji.

Kim Youngjoo (1920–1995) was born in Wonsan, Hamgyeongnam-do, and graduated from the Taiheiyo Art School in Tokyo. After his first solo exhibition in 1953, he participated in *Contemporary Korean Painting* (World House Galleries, New York, 1958), the Seventh Sao Paulo Art Biennial (1963), and the First International Festival of Painting Cagnes-sur-Mer (1969). At ARKO Art Center he participated in numerous exhibitions, including a solo exhibition (1975) and the *7th Seoul Contemporary Art Festival* (1981). Both painter and art critic, he founded the Korean Art Critics Association in 1956, helping to lay the institutional groundwork for Korean art criticism in the post-war period, and wrote for the inaugural issue of the art journal *Sinmisul*, deeply influencing the discourse of contemporary art. A leading figure within 1950s abstract painting, he formed the Contemporary Fine Artists Alliance in 1960 to drive the reform of the National Art Exhibition [Daehanminguk Misul Jeollamhoe] / (Gukjeon). Through all these activities Kim proved himself a crucial figure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modern art and avant-garde criticism.

Kim's painting often fused the figurative and the abstract. In the early 1950s he presented informel-inflected, unstructured surfaces within his work, then from the late 1950s he included figurative elements such as faces and letters. Around the 1970s he turned from an interest in art movements and collective consciousness toward contemplating inner life and human existence. Drawing on primal space and form and an Eastern conception of the golden section, he constructed his works from signs, letters, and geometric shapes, with the human condition as his abiding theme.

Story of Humans (1971–1973) distills this style, as figuration and abstraction meet in the theme he pursued for some four decades: the human. In the upper register a face overlaps with graffiti-like signs and free-running lines, while below, diagonal planes of color are set side by side. This weave of letters and signs, concrete forms and color fields shows the formal interests that defined his work from the 1970s onward.

Kim Chongha (1918–2011) was born in Seoul and studied at the Kawabata Art School and the Tokyo Imperial Art School in Japan. After earning an honorable mention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Joseon Misul Jeollamhoe] in 1932, he pursued his art studies in Tokyo, and in 1956 moved to France, where he studied for three years at the Académie de la Grande Chaumière. Here he became deeply engaged with Surrealist painting. Back in Korea, he helped found the figurative-art group Mokwoohoe Fine Artist Association in the late 1950s, and participated in major group exhibitions including *Korean Art—Today’s Method* (ARKO Art Center, Seoul, 1979), *Korean Art Toda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1986), and the *Invitational Exhibition of Veteran Korean Artists* (Seoul Museum of Art, Seoul, 1998–1999). His 1932 entry, at fifteen, made him the youngest artist ever admitted to the Joseon Art Exhibition; he received the Rubens Honorary Prize in France in 1982 and the Eungwan Order of Cultural Merit in 2002.

Grounded in a figurative painting practice, Kim rearranged landscapes, figures, and everyday objects into scenes of surreal effect. After his years in France, he brought the female body and the natural landscape together in his work, often joining the curves of the one to the forms of the other, or placing ordinary things in ways estranged from reality. *Image of a Moment* (1969), shown by invitation at the 18th National Art Exhibition [Daehanminguk Misul Jeollamhoe] / (Gukjeon), stirring creates an unfamiliar scene with the mysterious distance of its window-and-sea composition and the movement of birds within, and was cited among the exhibition’s principal achievements that year. *In Rest of Migratory Birds* (1974), figures joining women’s bodies to birds’ heads appear in a flock. In both works, nature and the objects of daily life share a single canvas, and the union of unlike things conjures an air of fantasy that defines his Surrealist style.

Min Bokjin (1927–2016) was born in Yangju, Gyeonggi-do, and studied sculpture at Hongik University. He received the Okgwan Order of Cultural Merit in 1996 and the Korea Artists' Day Honorary Achievement Award in 2009. Trained in modern sculpture in Korea, he led the development of Korean figurative sculpture. He was active in its major groups such as the Korean Figurative Sculpture Association, which sought a new direction in response to the abstract sculpture of the 1970s, the Hong-ik Sculpture Association, the Mokwoohoe Fine Artist Association, and Shinsanghoe, all laying the groundwork for contemporary figurative sculpture in Korea. At ARKO Art Center he participated in these groups' regular exhibitions and in major shows including *Korean Art—Today's Method* (1979).

Min created figurative sculpture centered on the themes of mother and child and the family, probing the bonds between human beings. Through simplified, stylized bodies, soft curves, and full volumes he gave form to human warmth and vitality, and in marble, granite, and bronze he built a restrained, balanced notion of formal beauty. He was equally active in creating commemorative statuary and public sculpture, expanding the scope of Korean contemporary figurative sculpture.

Mother and Child (1975) belongs to the *Mother and Child* series he pursued over many years. In the forms of mother and child simplified into rounded ovals, the work expresses the embracing love of humanity he sought to convey throughout his career, marked by curving forms and a balanced sense of volume.

Sung Neungkyung (b. 1944) was born in Yesan, Chungcheongnam-do, and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 A core member of ST (Space & Time), the experimental art collective of the early 1970s, he is regarded as one of the defining figures of Korean experimental art. At ARKO Art Center he took part in the *1977 11 Men's Way Exhibition, Seoul* and other regular exhibitions of Seoul Artists' Methods, and held the solo exhibition *Sung Neungkyung: Art is the Shadow of Distraction* there in 2001. He has been invited to major exhibitions at home and abroad, including *Only the Young: Experimental Art in Korea, 1960s-1970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2023).

Working through newspaper, photography, installation, and events, Sung has critically probed the press, institutions, and the conventions of art, dismantling and reconfiguring public print media such as newspapers, magazines, and maps. Through the later *Botched Art* series he has continued his inquiry into the border between art and life.

Newspapers: From June 1, 1974, On (1974), acquired by ARKO Art Center in 2008, was first presented as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at the 3rd *S.T Exhibiti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Deoksugung, 1974) and has since been shown in his ARKO solo exhibition and elsewhere. Presenting the act of cutting newspapers together with the results of such, the work exposed the constructed nature of the newspaper—formed between event and edited information—and the press censorship of the day. A month or two before the exhibition, Sung began removing articles daily with a razor blade, continuing throughout the exhibition. Stripped of their articles the papers now only consisted of photographs, advertisements, and blank spaces between columns. These skeletal remains were posted on panels in the gallery and replaced each day with a freshly cut publication, while the previous day's paper was stacked in a clear acrylic box, with the excised clippings gathered in a blue acrylic box.

Lee Jungja (b. 1940) was born in Seoul and studied sculpture at Ewha Womans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She drew critical attention in 1963 with second prize at the New Artist Awards exhibition, then won a Special Prize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Daehanminguk Misul Jeollamhoe] / (Gukjeon) in 1966. She held her first solo exhibition at Sun Gallery in 1977 and, active with the Korean Sculptress Association, took part in numerous group and regular exhibitions. At ARKO Art Center she was invited to *Korean Art—Today's Method* (1979) and the *6th Seoul Contemporary Art Festival* (1980). Through the 1980s and 90s she continued her work with Esang, later renamed Ewha Sculptors Association, in the Esang Group Show and the Exhibition of Ewha Sculptors Association.

In her early work Lee explored female figures marked by a soft-lined aesthetic, and from the mid-1970s she produced restrained sculptures of clothed figures in terracotta and ceramic. She later turned chiefly to marble and bronze in work such as her *Motherly Love* and *Mother and Child* series, giving sculptural form to ideas of hope and love alongside the meaning of motherhood and life.

Noble Lady (1977) dates from the period when Lee was establishing her own formal language in terracotta. Shown publicly for the first time since entering the collection, it captures the soft texture and reddish tone that defined her terracotta figures from around 1975 onward, marked by the restrained formal beauty and materiality of the terracotta medium she pursued.

Choi Youngrim (1916–1985) was born in Pyongyang and studied at the Taiheiyo Art School in Japan, and he learned woodcut technique from the printmaker Munakata Shiko. After moving south during the Korean War, he took part in the National Art Exhibition [Daehanminguk Misul Jeollamhoe] / (Gukjeon) from 1955 onward, serving as a recommended artist, invited artist, and juror, and helped found the Creative Arts Association in 1957, the Korea Prints Association in 1958, and Gusangjeon in 1967. Gusangjeon stood for a new figuration and became a defining group of the 1960s, moving beyond the divide between abstraction and academicism to lead a semi-abstract style carrying Korean sentiment and to seek a fresh path for figurative painting. Alongside fellow Gusangjeon members Hong Jongmyoung and Han Bongduk, Choi worked in both painting and print, building an independent world of Korean figurative painting grounded in folk tales, Buddhist legend, and shamanic imagination. He produced intensely black abstract and semi-abstract works in the late 1950s; from the late 1960s he drew on the distinctive *matière* of ochre and sand alongside native color to make work centered on folk tales—The Story of Sim Cheong, The Tale of Janghwa and Hongnyeon—in addition to women, children, Buddhist images, and oxen.

At ARKO Art Center he participated in numerous editions of Gusangjeon as well as major exhibitions including the *Invitational Exhibition of Printmakers* (1974), *Korean Art—Today's Method* (1979), *Korean Art: Print Exhibition* (1981), and *Exhibition of Artists from the National Art Exhibition* (1983). *Mother and Child on a Summer Day* (1974) depicts a woman and child using simplified forms and colors. Through its rough textures, concisely rendered figures, and balanced composition, the work conveys the Korean sensibility, reflections on humanity, and affection for family that the artist sought to express, while exempl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Choi Youngrim's painting in the 1970s.

Han Bongduk (1924–1997) was born in Yeongbyeon, Pyeonganbuk-do, and studied at the Xinjing Art School in Manchuria. After liberation he worked as an art teacher and illustrator for the Chosun Ilbo, and in 1957 participated in *the Contemporary Artists Invitational Exhibition*, hosted by Chosun Ilbo, leading a new current against the conservatism of the National Art Exhibition. He also founded The Contemporary Art Research Institute and helped establish Shinsanghoe, driving new directions in Korean modern art. Working through the Creative Arts Association and Gusangjeon with Choi Youngrim and Hong Jongmyoung, Han developed a new style of semi-abstract figurative painting. Beginning with a solo exhibition in 1954, he held solo shows in Sweden, Norway, Denmark,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was invited to numerous exhibitions at home and abroad, including the 1980s show at the Swedish National Museum. At ARKO Art Center he participated in numerous Gusangjeon group exhibitions from the 1980s into the early 1990s.

Before leaving for Sweden in the early 1970s, Han pursued informel abstraction as part of a break from tradition, developing a semi-abstract, surrealist style. He also worked as a sculptor, contributing to the Seokguram grotto replica at Bomunsa Temple in Seoul. In 1973 he moved to Stockholm, continuing an active practice centered in Europe. Drawing on Western painting and abstract form, he incorporated Eastern spirit and symbolism—through calligraphic brushwork, Chinese characters, Buddhism, Goguryeo tomb murals, and the Ten Longevities—into his work, and earned wide renown in Europe, particularly in Sweden.

Forest (1972), made before his move to Sweden, is built from free brushwork over color fields centered on teal and blue, overlaid with red and yellow. Here nature is taken as subject rather than literal depiction, and the simplified forms serve to emphasize the plasticity of color and line, revealing a semi-abstract, surrealist style.

Hong Jongmyoung (1922–2004) was born in Pyongyang (in present-day North Korea) and graduated from the Tokyo Imperial Art School in Japan; after moving south to Jeju Island during the Korean War, he contributed to training the next generation of artists. He won the Minister of Education Award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Daehanminguk Misul Jeollamhoe] / (Gukjeon) in 1953 and 1957, and received the Order of Civil Merit, Mongnyeon Medal in 1987. After moving to Seoul he helped found the Creative Arts Association in 1957. As a founding member of Shinsanghoe and later of Gusangjeon—a group that moved freely between figuration and abstraction, developing a semi-abstract style beyond the divide between realism and abstraction—Hong contributed to the new currents of Korean figurative painting in the 1960s and 70s. At ARKO Art Center he participated in *Hong Jongmyoung Dobuljeon* (1975), as well as *Korean Art—Today's Method* (1979) and numerous Gusangjeon group exhibitions.

Having experienced the pain of separation and displacement caused by the Korean War and national division, Hong painted the *Daughter of an Orchard Farmer* series of birds, girls, and infants throughout his life, never forgetting the daughter he had left back home in North Korea. He is also known for a style distinctively marked by natural subjects that evoke his lost hometown—birds, fish, flowers, figures—rendered in a native sensibility and brownish tones recalling Goguryeo tomb murals. *With Birds* (1975) and *Bird, Bird* (1979) exemplify this style. *Bird, Bird* was shown at *Korean Art—Today's Method*. Both works join human and natural elements around the figure of the bird, dissolving the boundary between figuration and abstraction and embodying longing for home and Korean sentiment.

Hwang Yongyop (b. 1931) was born in Pyongyang (in present-day North Korea), studied at Pyongyang Art College, and graduated in Western painting from Hongik University. Since his first solo exhibition in 1965 he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solo and group exhibitions in Korea and abroad. He received the 1st Lee Jung Seop Art Prize in 1989 and the Bogwan Order of Cultural Merit in 2005. At ARKO Art Center he had several solo exhibitions in the mid-1970s and participated in *Korean Art—Today's Method* (1979) and the '84 3rd Ingan [*The Human*] Exhibition (1984).

From 1961 to 1969, Hwang was a member of Engagement—a collective of young artists exploring both figurative and non-figurative approaches. Hwang later joined Ingan, which in the 1980s broke from academic figuration to focus on the artistic expression of human existence. Having pursued a series on the human theme through the 1970s, he expanded his interest from the late 1980s toward themes of national sentiment and traditional culture. His *Human* series passed through formal experiments moving between abstraction and figuration in the 1970s to render symbolic, unstructured human figures in spare lines, grasping human existence structurally through grayish-brown surfaces and linear drawing. *Human (II)* (1978) projects the artist's reflections on human life and existence in the face of history's tragedies through the line cutting across the picture plane, the vertical arrangement of the figures, human forms reduced to straight lines and curves, and the grey-toned ground. The work also offers a glimpse of the signature painterly style he developed through repeated work in series.

